

아이코노그래피 : 서양미술 속에 숨겨진 알레고리, 신화와 성서 읽기

윤 익 영

## 제 5장 파리스의 심판

신화 '파리스의 심판'은 르네상스 시대에 인기 주제로 라파엘로의 공방에서 확산되어, 마르칸토니오(Marcantonio Raimondi, 1480~1534년경)에 의해 테생에서 판화로 제작 되었다(도판<파리스의 심판>). 이후 마네, 모네, 피카소 등이 모작 또는 풍자하면서 현대적인 주제로 끌어들었다. 또한 <파리스의 심판>은 '르네상스 창안 물'이며, '미와 사랑'에 관한 미학과 성애론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주제이다.(플라톤의 『심포지엄』도 '미'와 '사랑'에 관한 것)

### 5.1. 파리스의 심판

올림포스 산에서 여신 테티스(Thetis)와 인간 펠레우스(Peleus)의 결혼잔치 중, 초대받지 못한 단 한명의 여신이 있었는데, 교태와 간계로 널리 알려진 불화(不和)의 여신 에리스(Eris)였다. 이를 눈치 챈 여신은 양갈음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 적힌 '금 사과'를 그들에게 던졌다. 결국 혼인잔치는 미의 증표인 금 사과의 주인을 정하기 위한 논쟁을 벌이게 되고, 제우스가 최후의 미녀로서 헤라, 아테나, 베누스를 내세운다. 제우스는 그 심판을 순진무구한 목동 파리스에게 넘겼으며, 헤르메스가 세 여신과 금 사과를 파리스에게 건네주어 '파리스의 심판'은 시작된다.

◆ **헤라** - 제우스의 본처, 질투가 심한 여신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마와 당당한 자태, 큰 눈이 매력이다. 공작새가 상징이며, 공작의 꼬리 깃털에는 아르고스(Argos)의 일백 개 눈알(까만 점박이들)이 빛나고 있다.(도판)

◆ **아테나** - '전쟁의 여신', '승리의 여신'으로 파르테논 신전에 모셔지며, 아테나의 손바닥엔 승리의 여신 니케가 놓여 짐, 아테나는 단순하게 무력으로 공격한 아레스와 달리 창과 방패로 전략으로 싸우는 지혜의 여신이다. 올빼미, 올리브 나무가 상징이다.

◆ **베누스** - 눈부신 미모와 사랑의 묘약으로 세상을 현혹, 쿠피도를 동반하고 솜염소 위에

걸터앉아 있거나 흰 비둘기 혹은 백조가 끄는 마차를 타기도 한다. 양귀비, 장미, 도금양, 참새, 제비, 할미새, 흰 비둘기가 상징이다.

□ 헤라는 명예와 부, 권력을, 아테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지혜를, 베누스는 사랑만큼은 보장해주겠노라고 하였다. 파리스는 사랑은 선택하고 베누스에게 금 사과를 주었다.

## 5.2. '파리스의 심판'과 세 여신의 포즈

◆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 - 아테나의 발치에는 방패와 투구, 뒤로는 창과 올빼미가 보이고, 베누스 곁에는 쿠피도가 있고, 뒷모습의 헤라의 발치에는 공작새가 있다.(도판)

□ 고전에 따르면, 아테나는 투구와 창, 방패를 뽐냈고, 헤라는 왕관을 자랑하며, 베누스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금발로 몸을 겨우 가리고 나와 아름다움을 보이지만, 사실 처음엔 그리스의 풍습에 따라 베누스조차도 의상을 걸치는 것이 관례였다.(도판)

□ 르네상스에 와서 세 여신 모두 누드로 바뀌었고, '앞면/옆면/뒷면'의 전형적인 자세 양식을 보게 되며,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에서도 반복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 전형적인 양식은 '삼 미신(카리테스)' 포즈에서 나온 것으로, 이 포즈의 매력은 한 여인의 누드를 한 바퀴 둘러볼 때 파악할 수 있는 세 측면의 몸매이다.

◆ '삼 미신'과 '파리스의 심판'의 구별 방법 - '파리스의 심판'의 헤라, 아테나, 베누스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삼 미신'은 세 자매이므로 팔을 맞잡고 한 몸처럼 서로 결속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도판)

□ 기원 후 1세기경에 이르러 그레코-로만 양식의 삼 미신은 '앞-뒤-앞' 면으로 구성된 독특한 양식을 보이기 시작(도판)하여, 점차 '옆-앞-뒤' '옆-옆-앞' '옆-뒤-옆'으로 발전

□ 특히 그레코-로만 양식의 시에나 지방 (도판<삼 미신>) 군상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영향을 줌(도판, 라파엘로의 <삼 미신>, <봄>)

## 5.3. 삼 미신(三美神, 카리테스Charites)

삶의 기쁨과 윤택, 은덕의 미를 의인화한 것, '우아미의 세 여신'으로도 불리며 모든 향연과 연극, 사교적 즐거움을 주관

제우스와 바다의 요정 오케아니스(Okeanis)의 딸들로 태어나 아폴론에게 선사, 세 자매 중 하나인 탈리아는 아홉 명의 뮤즈(무사이) 가운데 한 일원

향락주의자들에게서 파생됐고 고대의 세네카에 의해 전파, 중세 때는 잊혀 지다 르네상

스 시대에 부상, 삼미신은 베누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양 미술의 주요 소재가 됨

◆ 알베르티의 『회화론』(1436) - 헤시오도스는 그 세 여신을 '아글라이아Aglaia(광희光輝)', '유프로시네Euphrosyne(환희歡喜)', '탈리아Thalia(개화開花)'라고 불렀다. 한 자매가 선행(선물)을 베풀면 그것을 받은 자매는 다른 자매에게 베풀고, 세 번째는 다시 처음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은덕의 완성' 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 5.4. 삼미신과 베누스

삼미신은 15세기부터 부각되어 베누스의 시녀나 반려자로 등장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였던 피코 델라 미란돌라(1463-1494)는 삼미신의 이름이 이상미의 세 가지 속성인 '젊음' '환희' '광휘'를 의미한다 함

삼미신과 베누스의 관계를 '삼위일체' 사상과 결합하여 해석 ; 그리스도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삼미신은 베누스의 세 가지 속성인 것

그들의 이름인 '아글라이아', '유프로시네', '탈리아'는 베누스의 본질을 나타내는 '아름다움'(Pulchritudo), '사랑'(Amor), '쾌락'(Voluptas)또는 '정숙'(Castitas)으로 불림

베누스의 '신성화' '정결 화'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미신은 빈번히 매음굴의 간판으로 사용

#### 5.5. 삼미신과 아폴론

◆ (도판<베누스의 마차>) -두 마리의 콜롬보와 백조가 끄는 수레에 베누스와 삼미신 등장

◆ (도판<아폴론과 삼 미신>) -15세기 말, 실연당한 아폴론을 주제로 한 것, 월계수 나무를 중심으로 삼미신이 앞, 옆,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폴론 마차를 끄는 삼 두 괴물(개, 사자, 늑대)은 '아폴론-세라피스'라 불리는데 이들은 '신중함의 알레고리'를 갖는다.

◆ (도판<음악의 우의>) -책자그림, 음악 원리와 천체 우주론의 조화를 비유한 것, 세 갈래 머리의 뱀을 수직으로 양옆에 칠성신과 뮤즈가 배치, 아폴론 옥좌 옆엔 꽃, 악기(류트)가 있으며, 왼편에는 삼미신과 그녀들의 이름인 아글라이아, 유프로시네, 탈리아가 기록

#### 5.6. 삼미신과 스키피오의 꿈

◆ 콜론나(Francesco Colonna)의 소설 『Hypnerotomachia Poliphili』(1499) 내용

폴리필리(Poliphili)는 '자유 의지'라는 여왕에 이끌려 어느 절벽 산에 도달했는데, 아랍

어, 히브리어, 희랍어, 라틴어로 된 편 문에는 'Theodoxia(신의 영광)', 오른 편에는 'Cosmodoxia(세상의 영광)', 가운데 문에는 'Erotrophos(사랑의 광채?)'라고 새겨진 '선택의 문' 앞에 도달. 인생의 기로에 놓인 그는 '사랑'의 길을 선택함.(도판)

□ 피치노는 이 세 개의 문을 '명상', '활동', '사랑'으로 비유하여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설명

#### ◆ 폴리필리 이야기는 파리스의 심판과 비교

피치노에 의해 '신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 '사랑의 광채'는 '명상'과 '활동', '사랑'으로 설교됐으며, 이는 다시 '아테나의 명상', '헤라의 활동', '비너스의 사랑'로 비유

#### ◆ 신플라톤주의가 본 폴리필리의 사랑

폴리필리가 선택한 '사랑의 길'은 명상(검소함)과 활동(근면함)을 아우른 '총화적인 사랑'으로 설명

□ 폴리필리 이야기는 큰 반향을 일으켜 '파리스의 심판' 뿐만 아니라 '기로의 헤라클레스' 주제에도 영향

#### ◆ '기로의 헤라클레스' 이야기

성인이 된 헤라클레스가 선(힘하고 좁은 길)과 악(평탄하고 넓은 길)을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시련과 명예가 있는 선한 길을 택하고 고난 끝에 영원한 생을 얻었다는 이야기(도판)

이 알레고리의 영향은 (도판<스키피오의 꿈>)에도 파급되었는데, 곤하게 잠든 기사의 양 옆으로 한 여인은 검과 책(권력, 지혜)을, 다른 여인은 꽃(쾌락)을 제공(이것 역시 피치노가 설파한 '명상'과 '활동', '사랑'의 세 가지 길과 일맥상통)

#### ◆ <스키피오의 꿈>

스키피오(Scipio)는 로마 정치가로 에스파냐를 정복한 로마의 코르넬리아(Cornelia)가 문

그 역시 시련과 쾌락의 갈림길에서 시련의 길을 선택, 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따왔다는 '황금사과'로 보상받았다고 전해진다.

♣ '황금사과'는 제우스와 헤라가 결혼할 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선물한 것으로, 헤라는 그 나무가 너무 아름다워 아틀라스의 서쪽 은밀한 곳에 심고, 한 마리의 용과 세 명의 헤스페리데스(Hesperides)에게 지키도록 함. 헤라클레스를 미워했던 헤라가 그 황

금사과를 따오도록 함('헤라클레스의 12과업' 중 가장 힘들었던 것)

이 황금사과는 아마 '오렌지'를 뜻하는 모양인데, 오렌지의 원산지는 서쪽이고 오렌지의 색은 황금사과를 지켰다는 '석양'의 요정 헤스페리데스의 빛깔과 닮았기 때문임

□ 요컨대, 헤라클레스가 따온 황금사과 정원이 서방의 은밀한 곳에 있다는 점과 스키피오가 정복한 에스파냐가 (로마에서 볼 때) 서쪽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어 보인다.

#### ◆ 한 짝으로 그려진 <스키피오의 꿈>과 <삼 미신>의 의미

피치노는 '파리스는 쾌락을, 헤라클레스는 힘을,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선택했지만, 이들 모두는 벌을 받았다'고 충고했고, '삼 미신은 화합의 상징'이라고 했던 점으로 볼 때, 세 가지 미덕의 조화로운 결합을 의미

<삼 미신>에 묘사된 세 개의 사과는 뒷면에 그려진 스키피오가 보상받았다고 전해진 그 황금사과로서, 그 은택의 사과를 서로 '주고' '받고' '되돌려 준' 동일한 것의 순환. 선한 사랑은 '나눔과 화합'에 있다는 의미. 은택의 '순환과 화합'에 풍요와 지복이 온다는 알레고리. 좋은 것 혼자만 갖지 말 것. 돈, 지혜, 권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메디치가의 미덕

□ 르네상스 시대에는 목동 파리스조차도 스키피오나 헤라클레스처럼 그려짐(도판)

### 5.7. 큐비즘(입체주의)의 삼미신

고전주의는 한 인물의 정면과 그 짝의 뒷모습을 나란히 배치해 하나의 신체가 일련의 회전하는 연속적 형태로 배열시켰고, 이 같은 전통은 19세기 신고전주의 조각가들에게도 지속됐다(로잘린드 크라우스). '삼 미신'은 신고전주의 조각이 선호했던 주제로 재 부각

예) 카노바나 토르발덴(Bertel Thorwaldsen)의 (도판<삼 미신>)

19세기 전반(全般)에 걸쳐, 조각가들은 작품의 뒷면까지 동시에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왔으며, 그 해답을 '삼 미신'에서 찾았다는 것. 이 같은 방식은 카르포(Jean-Baptiste Carpeaux)의 (도판<춤>)(1868-1869)에서도 봄

19세기 신고전주의 조각은 이 같은 '복수시점'의 효과를 '삼 미신'에서 어느 정도 해소 시켰지만, 나중엔 '입체주의'의 한 전략이 된다.

1905년에 그린 피카소의 (도판<네덜란드의 세 자매>)의 구성과 자세는 어김없는 '삼 미

신' 양식의 포즈

삼 미신은 입체파 양식을 탐색하는 데 적절(도판<세여인>), 피카소는 오로지 입체구조 분석의 결과로서 세 가지 국면을 제시, 그의 누드는 분해와 조립(도판<머리손질>)

**고대의 삼미신** - '결합의 미학', 관능적 시각의 즐거움, 신화적 요소

**피카소 작품** - '분해'와 '분절'의 미학, 지적 시각의 즐거움, 신화의 몰락, 새로운 신화

### 5.8. '파리스의 심판'과 '삼 미신'의 현대적 주제

◆ 마르칸토니오가 판화로 옮긴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을 참고하여 마네가 (도판<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그렸고, 뒤이어 모네, 세잔도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그렸다.

◆ 세잔의 (도판<풀밭 위의 점심 식사>)(1870-1871)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 한다.

세잔의 사과

- 제프로이(Geffroy)라는 비평가에게 '사과 하나로 파리(Paris)를 깜짝 놀라게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사과를 평생의 테마로 선언. 이것은 화가로서의 성공에 대한 야망과 미의 심판으로 절세미인 헬레나를 얻은 파리스(Pâris)의 신화도 내포

- 그에게 사과는 인체와 등가물이었고, 사과의 둥근 형태와 싱싱하고 볼그스레한 색채는 하얀 식탁보에서 육체적 관능미를 유추하는 대상

- 예술가로서의 자기단련을 위한 도구, '파리스 심판'의 신화와 중첩시킴으로써 자신의 화가수련에 숭고한 감정을 부여, '성적 승화'의 도구

◆ 19세기와 20세기 미술에서도 '삼 미신'과 '파리스의 심판'은 지속적인 모티브로 발전

쇠라의 (도판<태갈부리는 여인들>)(1886-1888)도 그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이며, 이 그림의 직접적인 모델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1878)된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부조 <삼 미신>과 퀴비스 샤반느가 살롱 전(1879)에 출품했던 <해변의 소녀들>이다.

로베르 들로네(1885-1941)는 폼페이의 벽화 <삼 미신>과 에펠탑을 소재로 (도판<파리시>) 라는 대작(267×406cm)을 만들어 앙데팡당 전(1912)에 출품

◆ **현대판 매춘가로 풍자한 '파리스의 심판'**

(도판<요부들(사이렌)>), 피카소의 데생 (도판<갈보 집 : 선택>)

피카소의 대표적 걸작 가운데 하나인 <아비뇰의 아가씨들>도 '파리스의 심판'과 '삼 미신'의 삼박자 누드 표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초창기 판화 <목걸이>도 삼 미신 양식을 빌린 것이다.(도판) 그의 판화 <157시리즈-31>은 그의 말년인 70년대부터 제작된 판화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까지 언급한 핵심요소들이 잘 집약되어 있다.(도판)

<157시리즈-31>의 여인은 '삼 미신'에서처럼 '앞, 뒤, 옆'의 누드 형식에 맞춰 머리는 측면이고 어깨부터 가슴은 정면, 엉덩이는 뒷면을 보이고 있다. 누드의 이러한 해체와 분석, 다각적 시각의 동시적 구성... 여기에 입체와 공식이 요약된 것이다.